

【서 평】

20세기 초 중국 관동(關東)에 대한 진실한 재현 —장석영(著)·한길로(역), 『요좌기행』(2024, 지만지) 서평—

김관웅*

I. 철로 위 대한의 선비, 북만주와 아라사로 향하다.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 1851~1929)¹⁾은 강점 이후 더 이상 일본의 지배 하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갑고개에 오른 1912년 이른 봄 낙토검 독립운동 거점을 찾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이른바 복지(卜地)를 목적으로 하여 동지 몇몇과 함께 요좌(遼左, 당시 중국에서는 관동(關東)이라고 지칭했음)를 둘러보았다. 즉 1912년 1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경부선·경의선 기차를 신의주에 도착했다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서서 남만철로(南滿鐵路)를 이용하여 안동(安東)으로부터 장춘(長春)까지 일본 기차를 탔다. 다시 장춘에서 합이빈(哈爾濱)·목릉(木稜)을 거쳐 밀산(密山)까지는 러시아 기차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 집거지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그곳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밀산(密山)에서 왔던 길로 다시 아국(俄國) 중동철로에서 기차를 타고 한국의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도합 100

* 중국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명예교수.

1) 장석영은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후손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성리학 학통을 계승한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문하에서 학문에 침잠했던 인물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동지들과 함께 조약의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형을 강청(强請)하는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疏)」를 조정에 올렸고, 1907년에는 칠곡군의 국채보상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이 캠페인을 적극 벌려 나갔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장석영은 일제의 소위 '은사금'이라는 회유 공작을 단호히 배격했고,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스승 이진상의 문집 『한주집(寒州集)』의 교정과 출판에 진력하면서 동시에 저술 및 강학 활동을 계속했다.

일이 걸렸고, 그 거리가 무려 5890km나 되는 길고 고되고 위험천만한 여행이었다. 이 경력이 바로 장석영으로 하여금 여행기 『요좌기행(遼左紀行)』이란 이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게 하였다.

장석영이 이 위험한 여정을 오를 수 있었던 지적 배경, 그리고 이후 초지일관하게 독립운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원동력은 유교와 주자 성리학에 있었다. 역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근대(근대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논리를 따르려고 하면서 “전근대(봉건군주 전제주의)의 논리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유사(儒士)였다.(255p) 당시 그의 사상은 당대 중국 내 구지식인의 것과는 대별되어 주목된다. 이 점은 자본주의제도가 봉건주의 제도보다 선진적이기 때문에 공맹지도나 주자 성리학보다는 과학·민주 정신을 배워서 그것으로 중국을 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무술변법(戊戌變法)을 준비하고 있었던 강유위(康有爲, 1858~1927) 같은 이들과 다소 결을 달리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공가점(孔家店)을 타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호적(胡适, 1891~1962)·노신(魯迅, 1881~1936) 등과 같은 1919년 5.4운동 전후 중국의 급진적인 지식인이 서구의 “덕선생(德先生, democracy)”과 “색선생(賽先生, science)”을 맞아들여 나라와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했던 것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아래에서는 장석영의 발길을 따라 『요좌기행』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국경을 넘다: 안동에서 봉천, 그리고 장춘 여로(旅路)에서의 견문

주지하다시피 러시아가 부설한 중동철로에서의 제일 남쪽 여순(旅順)에서 장춘역(長春驛)까지의 구간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할양 받았다. 이후 1906년 11월 26일 총부가 도쿄에 있는 남만철도 주식회사가 창립되면서 남만철도(南滿鐵道)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해에 1906년 경의선(京義線)이 개통되고 또한 안동으로부터 봉천까지 지선이 부설되면

서 경의선은 남만철도와 이어지게 되었다.

장석영은 왜관에서 출발하여 서울과 개성,²⁾ 그리고 평양³⁾을 지났다. 2월 3일, 장석영은 조선 평안도 신의주와 중국 안동(安東, 지금은 丹東이라고 개명했음)⁴⁾ 사이의 압록강에 놓인 새 다리를 건너 중국의 첫 국경도시 안동에 도착했다. 안동에서 장석영은 당시의 중요한 독립운동가들로서 안동에 위치한 상점이자 객잔인 성신태(成信泰)를 만나 동지들과 결합하게 된다. 장석영은 이역 '타지'에서 만나게 된 그들과의 해후와 당시의 형용하기 어려운 당시의 심정을 매우 처연하게 글로 옮겨냈다. 국경 밖 안동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2월 4일, 장석영은 안동현 읍성 중심에 이르러 남부여대(男負女戴)하며 서간도(西間島)로 향하는 한인 이주민의 물결을 마주하게 된다. 그에 눈에 비친 당시의 실상은 다음과 같았다. 필자의 선친은 비록 지난 세기 3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살길을 찾아 만주에 오셨지만, 그때 역시 압록강의 이 철교를 건너서 오셨으니 이 책의 이 대목을 읽고 있노라니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
- 2) 개성과 관련된 기술을 보며, 1990년 4월 김일성종합대학에 연수차로 갔을 때 개성에서 선죽교를 돌아보던 기억이 뇌리를 스쳐 지났다. 그때 선죽교는 개성시 자남산여관 바로 정문 앞에 있었기에 개성에 체류하던 3일 동안 필자는 여관을 드나들 때마다 선죽교의 석판에 남아있는 불그레한 무늬가 정몽주의 핏자국 흔적이라는 관공 안내원의 말에 고개를 가우뚱 한 적 있다. 피가 돌 속에 스며 들었다는 것도 다소 의심스러웠지만, 6,7백 년 동안 불그레한 피 색깔이 변치 않았다는 점도 의심스러웠다. 필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게 된 것은 정몽주의 23대 대종손 정철수(鄭哲洙, 1923~1989) 응이 필자의 장인 허해룡(許海龍, 1926~1998)옹과 막역지우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 3) 1912년 2월 1일, 오후 평양에 도착한 장석영은 객점을 기자릉(箕子陵)과 가까운 곳에 정했다. 필자의 선친 김병기(金秉紀, 1917~2013)옹의 회억(回憶)에 따르면 당신은 바로 평양 기림리(麒麟里)의 기자릉 아래의 마을에서 태어나서 청년 시절까지 사셨다고 하셨다. 사실 이른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은 중국 선진(先秦)시대나 그 뒤의 여러 문헌에 보이지만 그 동쪽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제설이 분분하다. 『구당서(舊唐書)』에 의하면 고구려인들은 일신(日神)·가한신(可汗神)과 함께 기자신(箕子神)을 섬겼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한반도에서 유교가 주도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감에 따라 기자에 대한 숭앙심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1102년(숙종 7년)에 고구려 고도(古都) 평양 모란봉 아래에 기자사당(箕子祠堂)이 조성되어 거의 천 년 가까이 보존되어 오다가 1958년 김일성에 의해 갑자기 폭파되었다고 한다.
- 4) 당시 안동 지역에는 십삼도의군총재(十三道义军總裁) 유인석(柳麟錫, 1842~1915) 같은 한국독립의 병운동의 수령도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장석영은 모르고 있었는지라 이분에 대한 언급은 이 책에서 일언반구도 없다. 유인석은 경술국치 이후 전국 지사들에게 간도로 나와 수절하자고 호소했는데, 그러다가 1915년 바로 안동과 맞붙어 있는 압록강 기슭에 자리 잡은 관전현(寬甸縣) 방취구(芳翠溝)에서 생을 마감했다. 지금도 관전현 방취구에는 유인석의 묘소가 보존되어 있다.

“태반은 영남 사람이나 관동 및 호서·호남 또한 많았는데, 대략 하루에 누천이며 나날이 심해져 나라를 통째로 비우려는 듯 했다. …(중략)… 지금 서간도는 바람에 쓰러지고 그림자를 따라가며 앞 다투어 길을 나서 강을 건넜으나 노자와 식량이 부족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들의 곡소리가 길에 가득한 상태이다. 아! 하늘이 우리 백성들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곤궁하게 하는구나.”(37p)

한편 정통 유학자 장석영이 조선의 세자들이 억류당했던 봉천(즉 심양)고궁⁵⁾을 보며 청나라의 망국을 “황제의 무지”(43쪽)와 연관하여 이것으로 인한 천명이 그들을 떠나버렸다고 지적한 대목은 자못 흥미롭다. 청나라는 1636년 10월 20일 신축한 궁궐 안의 승정전(崇政殿)에서 아이신교로·황태극(愛新覺羅·皇太極, 1592~1643)이 후금의 한(汗)으로부터 대청제국의 황제로 개칭하면서 전반 중국을 제패하는 패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그날 조선의 사신 나덕헌(羅德憲, 1573~1640)과 이곽(李廓)이 궐배례(跪拜禮)를 올리지 않아 큰 사단을 일으켰고 결국 이는 이해 겨울 병자호란을 야기하는 중요한 도화선으로 되었다. 그리고 “후세 황제 무지하여 천명이 사라졌고(後辟無知天命去, 43쪽)”라는 시구도 맞는 말인데, 1793년 건륭황제가 영국 사절단 단장 조지·마르가니(George Macartney, 1737~1806)더러 자기한테 궐배례를 올리라고 했으나 듣지 않으니 영국 사절단을 축출해버리고는 폐관쇄국 정책을 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건륭황제는 세계의 흐름에 무지했기에 천명이 사라졌다고 한 장석영의 지적은 지당하다.

당시 서울도 아니고 한국 경북 칠곡군 오지에 살았던 장석영이 신해혁명의 말미에 손중산(孫中山, 1866~1925)의 양보로 원세개(袁世凱, 1859~1916)가 대통령이 되고 대청제국의 어린 선통(宣統, 1908~1912) 황제가 용상에서 쫓겨 내려왔다는 등 최신 뉴스도 여행 중이었지만 아주 자상히 알고 있음이 놀랍다. 하지만 그가 역사상

5) 장석영의 「요동오절(遼東五絶)」(43p) 중 두 번째 시의 소재로 된 심양 고궁은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와 봉림대군(鳳林大君, 후일의 효종, 1619~1659)이 볼모로 잡혀 와서 8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었던 처소 조선관(朝鮮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조선관은 심양고궁의 동남쪽에 조선관이 있었다. 장석영은 아마도 『심양일기(瀋陽日記)』 같은 자료를 읽을 수 없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중국과 조선의 흥망이 유사하다면서 비교한 점은 더러 맞기는 하지만 모두를 수긍할 수는 없다. 또 역서에 등장한 중국 장춘에서 현지 문인과의 필담을 종합해보면 장석영은 주창한 ‘황명(皇明)의 옛 제도’가 시대의 발전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명나라 때의 의관(衣冠)과 문물제도가 청나라 만족의 의관이나 문물제도에 비해 어느 쪽이 더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단지 명나라 때의 한인(漢人)이나 조선조 때 조선인의 발계(發髻), 즉 상투를 틀어 올리는 것은 만족의 변발(辮髮)보다 훨씬 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위생에도 훨씬 더 좋지 않다. 만족의 변발을 낮추려는 것은 애오라지 장석영 같은 화이지변(華夷之辨)에 물젖은 유사들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Ⅲ. 북만주 밀산 그리고 러시아 여로에서의 견문들

장석영의 북간도행 기차노선은 장춘 → 합이빈(哈爾濱)⁶⁾ → 목릉(穆稜) → 밀산(密山) → 흥개호(興凱湖)이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사회 치안질서에 대한 큰 두려움이었지만 그는 단신으로 중러 국경지대와 재러 한인들의 생활공간으로 들어갔다. 러시아 국경의 여러 지역 가운데 역자 또한 끝내 특정하지 못한 중국과 아라사의 접경지역인 “별우애(別又厓)”(157p)는, 합이빈에서 1천 4백리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분하(綏芬河)라고 짐작된다. 합이빈에서 수분하까지는 483.6km이므로 4km가 10리인 한국 이수로 환산하면 “1천 4백리”라는 말이 대략 맞는다. 이곳에서 전(田)씨 성을 가진 한 한인을 만나 그 집에서 묵으면서 물었더니 “이곳이 바로 길림”이라고 대답했으나 당시의 중국 지리와 행정구역의 획분(劃分)에 대해 잘 모르는 정석영은 길림성의 수부(首府)로서의 시가지 길림성과 중앙 정부 아래 행정구역으로서의 길림성을 구분하지 못한다. 사실 장석영은 강동(江東)의 한인 이민사회를 돌아보고 살만한 고장이 없겠느냐 복지(卜地)를 하려고 온

6) 참고로 합이빈은 중국인들이 만어를 음역한 지명으로서 강이나 호수에 사는 오리과 ‘고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것이었으나 그 강동이 대관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험한 길을 나섰으니 진 짜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

2월 17일, 장석영은 중러 국경에 위치한 별우애(別友厓)에서 차(무슨 차인지 불분명 함)에 올라 보래포(寶來浦, 구체적으로 어딘지 고증하지 못했음)에 닿아 김순서(金順瑞)라는 한인 농부의 집에 묵었다. 이 고장에는 한인 수백만 호(과장된 숫자임이 분명함)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장석영은 이런 한인들을 아라사와 중국 “두 나라 사람들에게서 소작해 먹고 살고 있다”(77쪽)라고 적었다. 그리고 나서 장석영은 중국에 건너 온 한인 이민들의 분포상황에 대해 “심양이나 장춘 같은 곳은 황해도와 평안도 양서(兩西)사람이 다수이고, 아국(俄國) 강동(江東)이나 청라 북쪽과 같은 곳에는 함경도 사람이 많다. 의관은 청나라에 있으면 청나라를 따르고 아국에 있으면 아국을 따르나 두발(頭髮, 상투를 틀어 올림을 뜻함)만은 여전히 지키면서 죽기를 맹세하고 깎지 않으니, 깎은 자들은 백이나 열 명 중의 한 두 사람뿐이었다.”(77p)고 기록했다. 사실 이는 당시 북간도(지금 연변지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⁸⁾ 왜냐 하면 의관은 당시 중국이나 아라사에 건너간 한인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2월 29일, 장석영은 상신치(上新峙)라는 시골에 들어가 송지련(宋枝連)이라는 한인의 집에 묵어 보름 동안이나 조석으로 수수밥 한 그릇과 물 사발에 장이 없어 소금으로 간을 하면서 겨우 버텼다. 기록에 따르면 1905년 강동에서 한인 이주민들이 벼농사에 성공했다고는 하나 밀산 같은 추운 북녘 오지에서는 쌀 구경을 못하고 살았다. 나라는 망해도 날마다 쌀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장석영은 춥고 배고픈 북녘땅 밀산에서의 이 삶의 고통을 견뎌내기 어려워 “이 인생의 곤고(困苦)가 이토록 지극하단 말인가!”(85p)하고 장탄식을 한다. 필자도 지난 세기 70년대 말~80년대 초반 길림성 훈춘시 중소국경선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7) 이른바 ‘강동(江東)’은 두만강 위쪽 동해의 포시에트만·블라디보스토크 등 여러 고장에 옮겨간 한민족 이민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고장들을 조선 함경북도 경흥·경원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두만강 동쪽에 있었기에 강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8) 류병호, 1999, 「조선족에 대한 청나라의 ‘편적위민’과 ‘치발역복’ 정책」,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1, (북경)민족출판사, 272-277쪽을 참조하라.

날마다 하루 세끼 수수밥을 먹으면서 억지로 버틸 때 장석영과 거의 비슷한 탄식을 하면서 살아온 경력이 있기에 당년 장석영의 고달픈 심정을 알 것 같다.

3월 1일, 정석영은 더는 밀산 같은 고장에서 버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즉 밀산 같은 북만의 한인 거주지를 돌아보고 난 장석영은 춥고 멀고 황막한 밀산 같은 고장에서 살 생각을 사실상 접고 귀국 길에 나선다. 4월 25일, 장춘에서 기차에 올라 봉천에 도착했으나 노선이 잘못되어 기차는 대석교(大石橋)를 거쳐 요하(遼河) 하구에 자리 잡은 발해 기슭의 영구(營口)에 도착했다가 다시 차표를 사서 기차에 올라 안동에 도착했고, 4월 27일 서울을 거쳐 4월 28일 김천에 도착한다. 이리하여 도합 백일, 약 1만 5천 리(5890km)에 달하는 요좌행(遼左行)이 마무리되었다. 결국, 장석영은 아라사의 강동은 가보지 못했고, 중국의 관동을 몸소 겪어보고 나서는 진저리를 친 것 같다. 아마도 장석영은 이 요좌행을 통해 중국 만주나 아라사 강동에 이민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린 것 같다.

IV. 「재상중화원대통서(再上中華袁大統書)」와 원세개라는 인물

책 말미에 부록으로 게재된 「재상중화원대통서」는 장석영이 밀산에서 한번 보냈고, 귀국한 뒤에 다시 한번 보낸 원세개(袁世凱, 1859~1916)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이다. 사실 이승희도 원세개 대통령에게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당시 한국 유사(儒士)들이나 사대당 여열(餘孽)들이 원세개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와 희망은 아주 컸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원세개가 벼락출세를 한 발판은 조선이었다. 원세개는 여러 번 과거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거자(落榜舉子)가 되자 붓을 버리고 총칼을 잡는 군계에서 출세의 길을 찾으려고 했다. 북양군벌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의 측근이었던 오장경(吳長慶, 1829~1884)의 휘군(徽軍)에 들어간 해가 바로 1881년이였다. 바로 그 이듬해 조선에서 흥선대원군의 며느리 민비(閔妃)를 축출하고 다시 대권을 잡아보려고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일으키자 충청도로 도망쳤던 민비는 청나라에

가 있는 사대당의 중요한 멤버였던 김윤식(金允植, 1835~1922)·어윤중(魚允中, 1848~1896) 등을 시켜 청나라 조정에 청병(請兵)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산동에 주둔하고 있었던 오장경이 3천 명의 청군을 거느리고 김윤식·어윤중의 안내를 받으면서 인천에 상륙하였는데, 원세개는 인천상륙전투부터 반군숙청 그리고 대원군 나포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용감성과 군사 재능을 발휘하여 당장에서 오장경 나아가서 이홍장으로부터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그런데 1884년 오장경이 병사하고 미구(彌久)하여 일본과 친일파들에 의해 갑신정변(甲申政變)이 발발하자 원세개는 비범한 과단성을 발휘해 청군을 이끌고 경복궁에 쳐들어가 일군 수비대를 일거에 요절내고 민비와 고종을 구해냄으로써 3일 만에 정변을 깨끗하게 탄압했다. 이리하여 원세개는 25세의 새파란 나이에 조선의 태상황으로 군림하여 조선의 정치·군사 등 모든 것을 자기 한손에 틀어잡았다.

하여 민비는 원세개에게 아첨하기 위해 예쁜 여자까지 선물하는데, 이 여자는 서울에서 원세개와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다. 이 김씨가 낳은 원세개의 아들 원극문(袁克文, 1890~1931)은 봉계군별수령 장작림(張作霖)의 아들 장학량(張學良, 1901~2001), 청말의 마지막 과거시험에서의 장원(壯元)인 장건(張謇, 1853~1926)의 아들 장효약(張孝若, 1898~1935), 직예도독 장금방(張錦芳, 1872~1942)의 아들 장백구(張伯駒, 1898~1982)와 더불어 이른바 ‘민국사공자(民國四公子)’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혔다. 여기에서 부언할 것은 장건(張謇)의 도움으로 조선 말기의 석학이자 대시인이었던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이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 중국 강소성 남통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면서 수많은 중국의 명류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시문들을 남겼다. 또 『연암집(燕巖集)』 같은 귀중한 책들도 편찬하면서 사시다가 남통 양자강기슭의 낭산(狼山)에 문혔는데 현재 김창강기념관은 그가 지난 세기 10~20년대에 살았던 남통 시가지 안의 저택에 차려져 있다. 1984년 필자는 남통에 가서 김택영의 저택과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그때 필자는 중한 양국 문인들 사이의 두터운 정과 끈끈한 유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장석영·이승희 등 대한제국의 마지막 유사들은 이 점, 특히 조선에서 12년 동안 보여준 원세개의 정치·군사·외교 능력에 대해 아마도 귀 아프게 들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조선에 대해 감정이 깊은 원세개가 자기들의 편지를 받으면 중국에서 떠도는 한인 이주민들을 거두어 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것은 사실 오산이었다. 하지만 장석영·이승희 등의 편지 중에서 원세개더러 “백성의 나라 민국”을 버리고 “황제의 나라 제국”을 회복하고 다시 황제의 용상에 올라앉으라고 권유하는 권진서(勸進書)로서의 이 편지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혹시 이 편지가 몇 년 뒤 원세개가 스스로 황제로 칭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원세개가 황제제도를 복벽하자 원세개를 성토하고 토벌하는 ‘토원운동(討袁運動)’이 들불처럼 전 중국에서 타올랐다. 그래서인지 원세개는 83일 동안밖에 용상에 앉아 있지 못하고 1916년 6월 6일에 덜컥 암에 걸려 급사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공맹지도를 계속 국시로 떠받들고 황제제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세개더러 용상에 다시 올라 앉는 복벽(復辟)을 하라고 권진서를 올렸던 조선의 장석영·이승희 같은 수구적인 유사(儒士)들은 이 부고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만 동시에 ‘영웅은 시세를 따르기’도 해야 한다. 원세개는 시세가 만든 영웅이기는 했으나 시세를 알고 따르지 못해 공화제도를 배반하고 군주제도를 회복시킴으로써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역행시키려고 했던 절국대도(竊國大盜)라는 천고의 오명(汚名)을 남겼다. 그것은 당시 공맹지도나 군주제도는 발달한 구미(歐美)에서만 아니라 문명 고국 중국에서도 이미 때가 지난 진부한 사상이나 제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 신문화운동의 선구자 호적(胡適, 1891~1962)은 원세개 사후 5년 후에 “타도공가점(打倒孔家店)”, 즉 ‘공씨네 가게를 짓부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V. 나가면서

장석영의 『요좌기행』은 1912년 일제의 한국에 대한 침략·통치 상황 그리고 중국 관동에서의 독립기지건설 운동과 중국 관동 이주개척지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

상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이 시기 한국독립운동사와 중국 조선족 이민사 연구에 진실하고 귀중한 실증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 시기 한인 유사들을 포함한 적잖은 한인 민중의 가치관·윤리관·민심·사상 동향 등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었다. 더불어 『요좌기행』은 구두(句讀)도 없는 필사본으로 된 원문을 대본으로 하여 순통하고 유려하며 또한 당시의 상황을 배려한 역문으로 전반 내용을 올바르게 한국어로 옮겨놓음으로써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수많은 한국 독자들에게 커다란 편리함을 선물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석을 다 달아 놓음으로써 독자와 연구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참고문헌·해설·작자소개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여 독서를 하거나 이 분야의 연구에 착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아주 중요한 당년의 사진들을 적재적소에 끼워 넣음으로써 독자들의 내용파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역자 또한 북만주 일대의 옛 지명과 당시 중국에서의 정세 판단에 대한 기술에서 다소간의 한계를 노출했다. 또 안동과 밀산에서의 무장 투쟁과 그 이면 그리고 유인석에 대한 설명이 보다 상세하게 언급했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럴 때 장석영의 노선과 방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부언할 점은 역자 역시 장석영의 『요좌기행』에서의 여행노선에 따라 요녕성·길림성·흑룡강 3성에 걸치는 약 1400km의 여정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답사를 함으로써 역문의 진실성이 한층 더 승화되고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